

대행 스님

인간까지 진화해서 올라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그림 · 최주현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이니까요. 여러분은 놓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성인들이 "우주의 근본과 태양의 근본, 천지의 근본도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 너무나 절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놓고 가기 어렵다는 거, 놓는다는 그 자체가 지금 말로 하자면은 보임(保任)을 하고 한데 뭉친다는 뜻입니다. 뭉쳐 놓는다. 한군데로 나고, 한군데로 든다는 그것이 바로 놓는 공부며, 모든 업을 무너뜨리는 공부며, 항복을 받는 공부며, 나를 깨닫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믿고, 나로부터 나오는 거를, 나로부터 들고 나는 거를 누구의 원망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남한테 따귀를 맞더라도 바로 내 주인공에 의해서 그쪽을 움죽거리게 해서 나의 따귀를 때리려니 생각을 하고 오히려 스승으로 아는 것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참다운 공부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말을 해 놓고 넘어가야겠기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전체는 지수화풍이 근본이 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서로 주고받고 공식하는 것도, 또는 질량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살 수 있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그 원천지는 바로 지수화풍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우주가 우리의 지수화풍으로 된 집이라고 해도 되고, 혹성을 집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몸뚱이를 집이라고 해도 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집입니다. 그 집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움죽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쳇말로 하자면 원자와 전자 양 개체가, 양자가 한데 합쳐져서 중성자가 됩니다. 그 중성자는 바로 우리가 법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왕, 자유인, 권도(權道)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권도법을, 중용으로써 용도에 따라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저는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삼십 년이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아신다면, 양자가 한데 합쳐지면 중성자가 된다.

그래서 양면을 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맡겨 놔라. 아무리 넣어도 두드러지는 법도 없고, 아무리 내놔도 줄어드는 법이 없다. 그런데 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양자가 다 중성자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두 전체가, 태양계도 그렇고 달 세계도 그렇고, 혹성이든지 은하계든지 다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상세히 알아라 이겁니다. 허튼소리 하지 말고…, 알지 못하는 것을 그저 남의 소리나 듣고서 한마디 내놓는다면 그것은 한데 떨어지기가 쉽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사십구 년을 설하여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거름으로 삼아서 그 속을 빼 볼 수 있고, 내 속과 그 속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 놓아야 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내 주인공밖에 없다.'라고 돌려놓고 또 좋은 것은 '주인공, 감사하구나.'라고 놓아야 됩니다. 남한테 일러 줄 때 그 말만 일러 주면 되는 거지 더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몸을 혹성이라고 한다면, 또 집이라면,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집 안에 중생들이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천차만별로 자기가 한 것만치 인연이 돼서 한데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 하나만 없애면 전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고집멸도의 사제법에 고 하나만 없앤다면, 그것을 녹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놓고 돌아간다면 다 없어지는 거죠. 집도 멸도 도도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이 나오실 때 물주머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과거 수십억 년 전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없이 알리기 위한 선언입니다. 물에도 지수화풍이라는 근원에 의해 바로 생명들이 살고 있고 지수화풍이라는 그것도 생명이 있는 거고 흙이나 산도 그렇고 모두가, 안개도 이 물에서 올라가서 전부 우주간 법계로 통신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물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것들도 전부 올라갑니다. 흙과 물과 같이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일 년에 세 번씩,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물이 세 번씩이나 갈라졌다 오므라졌다 하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것이 화해서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면 안개는 우주간 법계의 통신망이 되는가 하면 우리 생명들에게도 전부, 즉 말하자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모든 것을 충만히 차원대로 연락이 통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수화풍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전력, 광력, 자력이 충분히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은 구름대로 이 세상에 냉기가 돌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원력으로 화하게 되고, 뜨겁게 할 수 있는 원력으로도 화하게 되고, 또는 멸할 수도 있고 승화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능력들을 그 큰 구름 덩어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큰 구름 덩어리뿐만 아니라 조그만 것도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수화풍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허무하다고 그러지만 그 물질이 아니라면 그러한 진화력과 그런 통신력과 그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도 많아서 하나도 가질 게 없어야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버릴 게 없어야 하나도 가질 게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발이다. 아니 딛는 데가 없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발이 정말 평평하게 생겨서가 아니라, 아니 딛는 데가 없고 손이 아니 닿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나 아님이 없느니라." 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태양에도 해당이 되고 은하계의 별성에도 해당이 되고 달 세계에도 해당이 되고 온갖 혹성에도 다 해당이 되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이 되고 벌레에도 해당이 되고 물에도 해당이 되고 어디고,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중성자로 인해서 비서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즉 말하자면 원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서 중성자가 되면 중성자라는 그 비서는 항상 조절을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유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운전수가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면 그 기름은 자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